

# 입주민 정신건강 증진 '맞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주택관리공단 무주남대천관리사무소 협약 체결

무주 남대천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주택관리공단 무주남대천관리사무소는 3일 오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과 주택관리공단 무주남대천관리사무소 이상노 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무주남대천 휴먼시아아파트를 '마음건강 아파트'로 지정해 입주

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으로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고위험군 치료·복지지원 연계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소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관리공단 무주남대천관리사무소에서는 정신건강문제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세대수가 많은 무주남대천 휴먼시아 아파트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주남대천관리사무소 이상노 소장은 "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입주민들의 마음이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저출산·고령사회 등 대응 위해 31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인구문제에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모 주제는 ▲결혼·출산·육아·교육환경 개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정책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으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메일(jjsuddil@korea.kr), 우편,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통해 11

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1명) 20만원, 장려(10명) 10만원의 시상금을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수여한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이 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현안 문제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 8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정책 추진

### 무주군, 농업 정보 제공·애로사항 청취·품목별 교육 등 진행

무주군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지식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마련, 운영 중이다. 청년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주군에 정착하는 기틀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분과별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농업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품목별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군은 식량작물을 비롯해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6개 분야 품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과별 이론 및 컨설팅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농가 현장에서 현장실습도 계획하고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들로 구성돼 있

며,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각 품목 네트워크 정보교류를 위한 비대면 회의와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영농정착금 등을 지원하면서 경영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경로당 무더위 쉼터 방문 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하고 점검에 나섰다.

전 군수는 진안을 평촌 경로당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냉방기기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애로사항 등을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고 점검에 나섰다.

살폈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10일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자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시설 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회원 2차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취식은 금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안한수)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경로당프로그램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활발하게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전춘성 군수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폭염 및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3일부터 13일까지 귀농귀촌인 교육생 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장수 귀농학교를 운영한다.

## 귀농귀촌인 교육생 대상 장수 귀농학교 운영

장수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3일부터 13일까지 귀농귀촌인 교육생 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장수 귀농학교를 운영한다.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기 귀농학교는 장영수 군수와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장수군 소개 및 귀농정책 안내,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특강, 농기계 교육 등 24개 과정으로 구성해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강의하고 듣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귀농 전반을 소개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예비귀농귀촌인들이 현실적인 농촌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귀농한 선배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귀농 후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내용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새내기 귀농학교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귀농인들이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 백운 수박 본격 출하

진안군 백운면(면장 김현수)은 3일 여름철 건강 별미이자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백운 수박이 40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면은 진안군의 남부에 위치하며 금남호남정맥의 영향으로 덕태산(1,113m), 선각산(1,141m)등이 솟아 있고, 해발 300~400m의 고랭지이며 큰 일교차와 많은 일조량으로 수박의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에서 시작하는 심진강 줄기 주변을 따라 조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지라 선명한 착색과 저장성이 뛰어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백운면은 앞서 농가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수박 수 따기 등을 시행하는 등 명품 백운 수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현수 면장은 "백운 수박이 진안고원명품수박 이름을 달고,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 등 출하돼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주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단속

무주군은 오는 15일까지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외 영업 및 호객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총 10명(2인 1조)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7월 24일부터 ▲식품안전지도(부정 불량식품) ▲호객행위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안심콜(무주군에서 안심번호 부여·지원)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무주군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호객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사항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 진열 등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